

증권사 MTS사용 1000만 시대... 금융 플랫폼 발전 가능성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6개사 MTS MAU 1000만 넘어
가입자 데이터·막대한 트래픽
MTS 종합 가치 최대 6.8조 평가
지연사고 등 역량문제 해결 과제

지난해 불거진 '동학개미운동'이 증권업계 가져다준 효과는 수수료 증대뿐만이 아니다. 급격히 늘어난 개인투자자로 인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며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가입자 데이터와 막대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사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질적인 '먹통 사고'에 따른 부족한 정보기술(IT) 역량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TS의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MAU)가 100만 명을 넘어선 증권사는 6곳이다. 전통적인 리테일 강자로 대표되는 키움증권의 지난 1~2월 평균 MAU는 310만명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213만명), 미래에셋증권(158만명), 삼성증권(179만명), 한국투자증권(148만명), KB증권

〈MAU 상위 6개 증권사 국내주식 약정 점유율〉 (단위: 명)

증권사명	MAU	점유율(%)
키움증권	310만	22.97
NH투자증권	213만	8.50
미래에셋증권	158만	11.72
삼성증권	179만	7.61
한국투자증권	148만	7.75
KB증권	107만	5.25

지난 1~2월 평균,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NH투자증권

(107만명) 순으로 MAU 규모가 컸다. 지난해 초 대비 평균 MTS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국내주식 약정 점유율도 지난달 기준 키움증권이 22.97%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11.72%), NH투자증권(8.50%), 한국투자증권(7.75%), 삼성증권(7.61%), KB증권(5.25%) 순으로 비중이 컸다.

MTS 이용량이 늘며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상위 6개사 MTS의 올해 월별 인당 사용시간은 551분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했다. 지금 정도의 트래픽 증가와 일정수준 이상의 점유율만 확보

되면 단계적으로 수익 모델을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상위 6개사 MTS의 종합 가치가 최대 6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논의 중인 디지털화(CBDC)가 향후 널리 보급된다면 화폐를 송금, 유통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화폐 유통이 아닌 금융상품을 유통하는 MTS 입장에서는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서의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급증했던 주식 거래대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투자자 예약금은 65조3958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증시가 횡보하며 이전 고점보다는 줄어든 모습이지만 막대한 유동성은 아직 여전하다.

기존 증권사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꼽히며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증권업 진출을 선포했던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의 시장 반응도 예상보다 덩그러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야심 차게 출범한 토스증권의 경우 평균 국내주식 약정 점유율이 0.07% 수준이다.

아직 비대면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를 비롯한 리테일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입문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MTS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기존 방식에 익숙한 투자자들을 사로잡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생활 속의

주식투자를 추구하는 이들은 좋게 평가하겠지만 전문투자자 또는 단기 매매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후호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존 증권사들의 MTS 전산 오류가 계속되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앱이 지연된 것을 비롯해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연초부터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지연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MTS와 HTS 사고와 관련돼 접수된 민원은 1만2700건에 달한다.

증권사도 이러한 비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전산팀 관계자는 "막대한 관리비로 인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전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나 상황이 달라졌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MTS를 비롯한 플랫폼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테슬라 호실적에 서학개미 6100만 달러 베팅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필두 성장·기술주 집중매수
美 2조달러 이상 투자계획도 관심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 떠나려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은 명확하다. 금리 상승 이슈 속에서도 기록적인 물량의 전기차 인도를 완료한 테슬라를 필두로 성장주와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미국 정부가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건설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투자자의 투자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지난 한 주(3월 29일~4월 5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종목은 테슬라(6104만 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변동성 속에 잠시 놓쳤던 대장주 지위를 되찾으며 여전히 사랑을 받는 중이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순매수 규모는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고객 인도 물량은 18만4000대로 작년 동기과 비교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매수 종목〉 (3월 29일~4월 5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테슬라	6104만
2	몬트리올은행	2558만
3	애플	2460만
4	카누	1462만
5	보잉	1438만
6	처칠캐피털IV(CCIV)	1251만
7	대니머 사이언티픽	1205만
8	스킬즈	1090만
9	뱅크드 중기 회사채 ETF	1022만
10	게임스탑	989만

/한국예탁결제원

해 2배 이상 급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4.4% 오른 691.0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테슬라의 실적 호조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은 4일 발표한 투자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종전 9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며 투자 의견도 '보유'에서 '시장수익률 초과'(outperform)로 바꿨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7%에 육박한 상황도 의식 중이다.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금융주도 빼놓지 않고 매수한 것. 몬트리올은행이 2558만달러 규모로 테슬라의 뒤를 이었다. 몬트리올은행은 이달 들어 1.21% 오르며 금리 상승의 수혜주임을 입증했다.

기술주에 대한 사랑도 여전했다. 애플(2460만달러)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1462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 보잉이 1438만달러로 오랜만에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블루웨이브'에 따른 강력한 부양 조치에 힘입어 항공 운항 수요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처칠캐피털IV(CCIV·1251만달러), 대니머사이언티픽(1205만달러), 스킬즈(1090만달러)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가 경제의 회복 관점에서 빠른 경기 부양 효과를 견인하는 전통 인프라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다"며 "경제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친환경 인프라와 여기에 파생될 다양한 산업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中 주식 실시간 시세 무료제공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고객의 중국주식 매매 편의성을 위해 상해A와 심천A에서 거래되는 종목과 지수의 실시간 시

세를 제공한다. 그동안 15분 지연된 시세를 이용하던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일문 사장은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편의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해외주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국 주식에 이어 중국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시간 시세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외주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신한금융투자, 1000억 ESG채권 발행

만기 3년, 금리 1.5% 원화 채권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분야 투자

신한금융투자가 10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을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ESG채권은 만기 3년, 금리 1.5%의 원화 채권으로 녹색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ESG채권 발행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ESG채권 관리체계 사전인증을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은 ESG 체계를 '친환경', '상생', '신뢰' 세가지 방향으로 설

정하고, 다양한 ESG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에 발맞춰 국내외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금융자문 및 투자를 확대하고 신한금융그룹의 'N.E.O Project'와 연계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환경경영 체계 인증(ISO14001)을 획득하고 업무용 차량의 단계적 전기차 교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을 실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의 'Zero Carbon Drive' 정책을 실천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대신증권, 비대면 가입고객 최대 6만원 경품

‘금융상품 비대면시대’ 이벤트
30일까지 온라인 가입고객 대상

대신증권은 6일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6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비대면시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상품 비대면시대' 이벤트는 대신증권 고객이 온라인 거래매체(MTS, HTS,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또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가입하면 가입금액 1000만원 당 1만원의 펀드쿠폰을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벤트대상 금융상품은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온라인전용 펀드와 대신증권

에서 청약할 수 있는 ELS다.

또 '금융상품 비대면시대' 이벤트 참여고객이 이벤트 기간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펀드쿠폰 1만원을 제공한다. 펀드쿠폰은 펀드를 가입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MTS, HTS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 크레온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직접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추세"라며 "이 이벤트를 통해 금융상품 투자도 하고 연금저축을 통해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